

짜수? 흡수? 광주 곳곳서 혼선...“하루빨리 해제됐으면”

공공기관차량2부제·공영주차장5부제첫날

끝번호 흡수·민원인은 3·8 출입 제한
버스승객 많고 택시 이용자들도 다수
신원 확인·수시점검...위반 경고장도

“예? 못들어간다고요?”

중등 사태 장기화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8일 광주 지역 공공기관에선 혼선이 잇따랐다.

해당 조치는 지난 2일 원유 자원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시행됐다.

시·구청,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흡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흡수인 차량만, 짜수일에는 짜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장애인·임산부,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다.

민원인 차량에도 5부제가 적용돼 끝번호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에서도 5부제가 시행되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대중교통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 혼잡지역 등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8일 오전 광주 서구청 입구에서 직원이 출입하는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5부제 시행 첫날과 달리 2부제로 강화된 이날 공공기관들은 오전부터 단속에 나서느라 분주했고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차장도 한산했다.

오전 8시에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은 형광 조끼를 입은 직원들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에 나섰다. 비슷한 시각 남구청도 민원인 주차장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들어오는 차량마다 신분을 묻고 오전과 오후에 나눠 수시로

점검했으며 회차차량도 종종 나왔다.

오전 8시30분께 서구청 앞의 농성역 등 지하철역 입구에서 걸음을 재촉하는 이들과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로 붐볐다. 한 버스기사는 “오늘은 평소보다 타는 사람이 많으니 내릴 때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구는 오전 10시부터 청사 인근을 점검했고 직원 차량 2대를 발견해 ‘공공 2부제 위반 경고장’을 부착했다.

운행 자제를 줄여 자원을 아끼자는 취지에 따라 청사 내 주차장 밖에 두는 일종의 ‘눈속임’을 잡겠다는 것이 서구의 설명이다.

반면 북구청 인근 골목길은 차량으로 꽉 차 있었다.

노인일자리로 매일 북구청 주변 골목을 청소하는 김종욱(70대)씨는 “이 시간대면 주로 골목이 한산한데, 이렇게 꽉 찬 건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날은 흡수 차량 출입이 제한됐는데, 오전 10시에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 앞에서는 한 직원이 ‘짜수 차량 출입 불가’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다가 뒤늦게 바꾸는 등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한 공무원들은 “끝자리 흡수량 짜수 중 어떤 게 낫는지 헷갈려 찾아보다 늦어져 급하게 택시를 잡았다”며 “5부제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남대스포츠센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김모(30대)씨도 “민방위 훈련이 북구청에서 있어 차를 타고 오려 했지만 5부제 대상이라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탔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동참하지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연상·서형우·윤찬용 기자

12·29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13일 재개

두달간 무안공항 둔덕 일대 등 집중

유가족協 “철저한 책임 규명” 촉구

정부의 초기 수습 부실 논란이 지속되는 12·29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유해 재수색 작업이 재개된다.

8일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 군 등 관계기관은 오는 13일부터 무안국제공항 일대에서 유해 재수색에 나선다. 이번 수색은 공항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둔덕 인근, 외곽 지

역 등을 중심으로 약 두 달간 주 5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수색 범위는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을 중심으로 약 8천평 규모로 구체적인 수색 방식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그동안 추가 유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된 곳으로 정밀 수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2월 사고기 잔해 제조사 과정에서 유해 추정 물체 100여점과 유류품 794류음, 휴대전화 6점 등이 발견됐으며, 이중 38점은 실제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공항 외곽과 둔덕 일대에서 유가족들이 직접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서 초기 수습 과정

의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99% 수습 완료됐다고 선언했던 정부의 수색 작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전면 재수색을 요구했다.

참사 발생 1년4개월이 지났지만 관련자 구속이나 공식 조사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아 진상 규명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재수색과 함께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찬용 기자

모델서 출산·방치 숨지게 한 연인 항소심도 ‘징역 7년’

모델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

희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

이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약 열흘간 유기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인재영 기자

청부살인 시도·18년 해외 도피 50대 ‘징역 22년’ 구형

내달 13일 선고 공판

청부살인 범행에 실패한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모(50·건설업)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04년 5월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A씨를 살해하고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씨는 부동산 사업 갈등 문제로 A씨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범행했다.

범행이 실패해 끝나면서 A씨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도망쳐 가정을 꾸렸고,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청부살인에 가담한 공범 3명은 이미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인재영 기자

함께 지내던 지인 차 훔친 20대 구속

함께 지내던 지인이 잠든 사이 차량 열쇠를 훔쳐 달아난 20대에 구속됐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A(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에서 함께 지내던 B(60대)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낸 곳이 마땅치 않게 된 A씨는 지인 사이인 B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중 B씨가 잠든 틈을 타 승용차 열쇠를 쥘까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께 A씨를 월산동 인근 도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형우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